

## 빨간 벤자민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관악우체국 청사 개축 현장



광운기전은 공사시작 전에 현장의 직원들에게 시공방법에 대해 설명한다.(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변중호 소장)

### 미작산업(주) · (주)광운기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우체국 청사 개축 기계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로부터 분리발주로 수주된 현장이다.

미작산업(주)(대표 배태석)와 (주)광운기전(대표 이광수)이 기계설비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미작산업이 51%, 광운기전이 49%의 공사를 맡고 있는데 기계실 및 공조배관, 덕트, 위생배관 등 주요 공사는 광운기전이, 정화조, 자동제어, TAB, 연도 등 주로 외주제작은 미작산업이 시공하고 있다.

원래는 광운기전과 일성공업이 공동으로 수주받았으나 일성공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일성공업의 보증업체인 미작산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공사금액은 13억9천 5백만원으로 지난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오는 2006년 1월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6개월여를 앞당겨 오는 2005년 6월경 완공 예정이다.

미작산업(주) · (주)광운기전

일반 현황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2-2번지
- 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건축물 규모
  - 대지면적 : 2,231.80 m<sup>2</sup> (675.12평)
  - 건축면적 : 1,178.73 m<sup>2</sup> (356.57평), 건폐율 : 52.82%
  - 연 면 적 : 9,554.67 m<sup>2</sup> (2,890.29평), 용적율 : 247.05%
  - 조경면적 : 385.88 m<sup>2</sup> (17.29%)
  - 주차대수 : 68대 (지상 : 2대, 지하 : 66대, 장애자용 2대포함)

• 층수 및 구조

- 층 수 : 지하2층 지상6층 (최고높이 30.45M)
- 구 조 : 철골조(지상), 철골 ·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MAT기초
- 외부마감 : A/L복합판넬, 파스텔 복층유리
- 굴착공법 : 주열식벽체(CIP) + STRUT(3~4단) 지공법

• 기타 시설물

- 이륜차거차장 : 81대 (지상 29대, 지하 52대)
- 분뇨정화조(750인조), 지하저수조(132톤)
- 공개공지 1개소
- 수전용량 600KVA, 발전기용량 260KW
- 승강기 : 3대(승객용1대, 화물용2대)

우리는 흔히 공사현장이라면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폴폴 날리는 현장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곳에 꽃이 있다면 어떨까?

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국내 현장은 꽃이 없는 삭막함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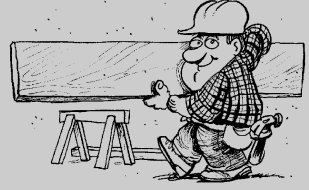
그러나 (주)광운기전의 현장사무실엔 꽃이 있었다. 그것도 제라늄과 시칠라멘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빨아들이듯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하니 반겨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제라늄과 시칠라멘이었다. 감리실에서 회의 중이라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역시 분리발주 현장임을 실감했다. 감리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원도급업체의 하나로서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한다는 의미이기에.

사무실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있는 서류철과 화이트보드에 밸브의 그림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각 부위별로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중에 들어온 (주)광운기전의 변종호 소장은 30여년의 현장경험 베테랑답게 시원시원했다.

(주)광운기전은 이번이 첫 분리발주 공사인만큼 강한 의욕과 함께 오랫동안 현장을 누비고 다닌 변종호 소장을 택했다. 그 것은 역시 탁월한



지하2층 기계실벽 관통스리브 설치



지하2층 기계실 급수 PUMP 배관

선택이었다.

현장은 변종호 소장에 의해 깔끔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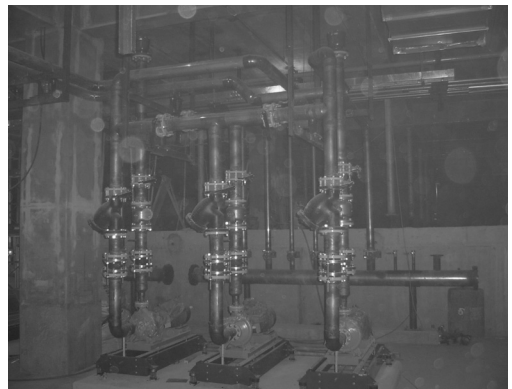
변종호 소장은 다년간의 현장경험에서 얻은 철학이 있다. 정리정돈이 잘돼야 모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 안전화, 안전모의 착용은 가장 기초이며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잘해야 일처리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야 반듯한 마음으로 바르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설치공사 - 응축수탱크설치 및 배관



지하2층 기계실배관공사 - 냉온수펌프설치 및 배관

미작산업(주) · (주)광운기전



지하2층 기계실 PSM 방진 설치



지하2층 화장실 오배수배관

그래서 그는 늘 현장의 직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사고에 정성들인 시공을 결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현장은 지난 6월 7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시공품질현장점검에서도 심사위원들 모두가 잘된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리발주 수주 공사는 금액 및 시공면에서 많은 이득이 있어 우리 회원사라면 꼭 하고 싶어하는 현장이다. 발주자 및 감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 모든 애로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는 한편 그만큼 시공에 대한 책임도 무겁지만 일한만큼 대우받기 때문이다.

이 현장의 특기사항은 팬코일 유니트를 동관배관으로 하는 것.

이제는 팬코일 유니트에도 동관을 사용하는 시

기가 왔다고 변종호 소장은 말한다. 그만큼 배관의 고급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팀라인은 흑관으로, 오배수라인은 메카니칼 주철볼트 타입으로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변종호 소장은 시방서대로 일위대가에 의해 정확하게 시공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질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 노력하는 것은 시공자들의 몫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설비인들의 역할이라고 변종호 소장은 자신있게 말한다.

변종호 소장의 자신있는 모습을 보며 고품질의 건물이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